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사회 속 외톨이가 된 노인들이 주변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고 사후에 시신 수습을 해 줄 사람조차 없는 가슴 아프고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독사를 빈곤층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독사라는 것이 경제적 상태를 떠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참으로 고독한 세상이 도래 한 것입니다.

무연사회(無緣社會)란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연(緣)이 끊어진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무연사회의 문제는 진작부터 노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연고가 없는 죽음을 파고들다 보니 무려 3만2000명에 이르는 충격적인 현실과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시신들이 몇 개월째 방치돼 미라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연사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기네스북 감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한 현실로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가고자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나눔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은 올해 소식지에 후원이 절실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거리 모금도 전개하려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함께할 자원봉사자도 모시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이 시민 나눔 문화로 회향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봄의 이변

처음 마음으로 8 비움과 하심(下心)

참교육 이야기 14 초·중·고생 105만4천여명, 정신과 치료대상...왜?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18 여기 한국의 블루스 음악이 있다, 블루스더, Blues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22 작은 울림 큰 물결 -제이드 Jade

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 28 무소유의 삶 -법정(法頂) ②

차내음 가득한 시간 31 찻자리의 향사르기

한국의 탑 34 경주의 석탑③ -니원리 오층석탑

특별보고 36 2012년 결산 / 2013년 예산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38 아름다운 마무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0 중앙, 대구, 경남, 부산,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6



요즘 남녘에는 매화가 한창이란다.
옛 시인의 말대로
‘남해의 신선이 사뿐히 땅에 내려
달밤에 흰옷을 입고 와서 문을 두들긴다’는
그 매화가 한창이란다.

-법정-

표지사진 · 회원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
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1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051)898-2672~3 / 대전모임: (042)823-0770 / 경남모임: (055)266-0710 /

광주모임: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봄의 이변

글 • 법 정(法 頂)

입 벌려 말하기보다 입 다물고 잠잠히 있을 때 삶의 밀도 같은 것을 느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쓰는 일보다는 읽는 일이 더 즐겁고, 읽는 일보다는 이만쯤서 바라보며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이 더 즐겁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텅 빈 데서 존재의 알맹이를 보게 되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에 눈을 팔기보다 소리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우주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팔리다보면 제정신을 가누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된 소리

안 된 소리에 묻히면 자기 자신의 소리를 읽고 맙니다. 그저 남의 소리를 흉내 내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스스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떠밀려 살게 될 때, 소중한 우리 인생은 마치 남의 삶처럼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왜 글을 쓰지 않느냐는 물음을 이따금 아는 사람들로 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시끄러움을 더 보태는 일 같아서 좀 쉬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되풀이되는 인습과 일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쉬는 것입니다. 인습과 타성에 찌들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뻘뻘스러워지고 무디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낱 티끌이나 소음으

로 전락되고 맙니다.

내 삶에 성이 차지 않을 때 나는 입을 다물니다. 밖으로 향했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묵은 발을 일구듯이 내 속똥을 다시 경작합니다. 벽을 향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마음의 바다에 부침하는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텅텅 비웁니다. 텅텅 비워버려야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두둔하게 되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매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는 일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재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맙니다. 내가 하는 일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말하기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요.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얽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서로서로의 이웃입니다.

그 사회적 존재의 기능을 하느라고 지난번 총선거 때 나도 오랜만에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투표소까지 왕복 30리 길을 찾아가서 투표한 것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원을 만난 일도 없고, 물론 돈이나 선물을 받은 바도 없지만, 내가 선택한 정당의 후보한테 주저없이 선택 찍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보고 뜻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꼈지만,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것 같은 그

런 감회였습니다.

어느 곳을 지적할 것도 없이 선거운동의 양상을 보면 그토록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선진 조국으로 향한 공명선거도 한낱 허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례적인 소리요 다짐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역력히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비리와 부정과 부조리가 방방곡곡 각계각층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수 계층의 부재자 투표는 아직도 선거 부재를 뜻하는 말과 같습니다. 타율적인 압력에 의해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한심스러운 여건 아래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은 혼을 팔지 않고 자주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권표의 향방이 미심쩍어 포기하지 않고 투표를 했다고들 합니다. 고무적이었다는 말뜻은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치나 선거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선거 결과를

두고 열을 올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때 세상은 분명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 조국 쪽으로 즐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숲에서는 휘파람새가 울고 구우구우거리는 산비둘기 소리도 들립니다. 밤으로는 다시 무당개구리 우는 소리가 저 아래 웅덩이에서 들려옵니다. 해마다 해동(解冬)할 무렵이면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들이지요. 잠든 숲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축축이 봄비도 내립니다.

그러나 올 봄 내 뜰에서는 매화를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수절(雨水節)에 몰아닥친 설한풍(雪寒風)으로 꽃망울이 죄다 무참하게 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봄 날씨처럼 포근한 날들이 이어졌었지요. 매화나무 가지마다 봉긋봉긋 꽃망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가지 아래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내안에서도 애뜻한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진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잠들지 않고 봄을 향해 꽃을 마련하고 있는 나무가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화가 단원(檀園)은 요즘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화필 덕에 잘살았을 텐데, 때로는 끼리를 꿰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림값으로 엽전 3천 문(文)을 두고 갔습니다. 단원은 그 중 2천 문으로 잘생긴 매화 한 분(盆)을 사고, 8백 문으로 좋은 술을 여러 말 사다가 친구들을 초대, 그 매화를 감상하면서 흥겹게 마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2백 문을 살림에 보탬냈지요. 매화 향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화는 선비의 기개와 기품을 생각해 하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서도 첫째로 꼽는 것 같습니다. 남녘에서 3월 하순께부터 피는 매화는 다른 봄꽃처럼 성급히 서들지 않습니다. 꽃망울이 잔뜩 부풀어 있으면서도 선뜻 문을 열려고 하지 않지요. 그 몸가짐이 아주 신중합니다.

햇볕을 가장 많이 받은 가지 끝에서 한 송이가 문득 피어나면 잇따라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무수한 꽃이 수런수런 열립니다. 이때 온 뜰에는 봄기운이 넘칩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봄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엄동설한도 거뜬히 이겨낸 꽃망울이 우수절의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참혹하게 꺾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올 봄 전국의 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명이나 제적등 학사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토록 비정한 경쟁을 치르고 들어간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것입니다. 때 아닌 설한풍에 망울째 저버린 매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985

- 물 소리 바람 소리 중에서 -

비움과 하심(下心)

글 • 德 耘(스님)

우리나라 사찰을 둘러보면 일주문에 가장 많이 눈에 띄이는 주련이 하나 있습니다. 주련이란 법당기둥에 불교의 이치를 요약한 불경의 짧은 경구를 적어 넣거나, 새긴 것을 말합니다.

그 주련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神光不昧 萬古徽猷(신광불매 만고 휘유)니,

入此門莫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라.”

남송 말에서 원초 시대에 사셨던 고봉선사의 제자 중봉 명본선사의 말씀으로, 그 뜻을 풀이하자면 “신령스런 광명이 어둡지 않아 만고에 빛나니, 이 문

에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스런 광명은 즉 불광(佛光)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어둡지 않아 삼세를 통해 밝게 빛나니, 이 절집의 문에 들어오거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속의 옳고 그름, 이해득실 등 온갖 알음알이를 버리고 빈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절집 문에 들어와서까지 알음알이를 내며 자랑하고 애기합니다.

불문(佛門)에 들어오면 비우고 들어

와야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술과 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식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있으면 아무리 소박한 진리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빈 마음이라야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제자가 아상(我相)이 강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스승의 지혜가 제자에게 전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자가 덕 높은 노선사를 뵈길 청했습니다. 스님을 뵈자 이 대학자는 철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선에 대해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노선사는 줄곧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찻잔이 넘치는데도 노선사는 계속해서 찻잔에 차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학자는 노선사에게 말했습니다.

“노선사님, 찻잔에 찻물이 넘칩니

다.”
노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마치 이 찻잔과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선을 말해도 더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깨우칩니다. 이 학자가 무엇을 깨우쳤을까요? 불문(佛門)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이지 세속적 지식이 아닙니다. 버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세속적 지식과 시비심을 다 버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지식을 배우고 자랑하려면 세속에서 할 것이지, 불문에서 할 일은 못됩니다.

그리고 절집에서 배운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가슴에 용해되고 승화된 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도 그것이 가슴으로 용해되어 지

해가 되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불교에 대한 지식조차도 오히려 번뇌가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절집에 들어와서까지도 시비를 논하고 스님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절집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으며, 들어오더라도 악업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은 비움과 하심(下心)으로서 도를 성취하신 구정선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동대(만월대), 서대(장년대), 남대(기린대), 북대(상삼대), 중대(지공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곳을 일러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동대에는 관음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구정선사의 설화가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옛날 비단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효심이 지극했습

니다. 어느 날 비단 짐을 짊어지고 강원도 대관령고개를 넘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던 그는 이상한 노스님을 한분 발견하게 됩니다.

누더기를 입은 노스님은 길 옆 풀밭에 서서 한참이 지나도록 서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서 계실까? 생리적인 불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생각하며 바라보다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부터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하니

노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서있던 노스님은 청년이 재차 물어보자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중생들에게 공양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꼼짝 않고 서있기만 했는데,

중생에게 공양을 시킨다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로군!’ 하면서 더욱 궁금증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떤 중생에게 무슨 공양을 베푸십니까? 하니

“옷 속에 있는 이와 벼룩에게 피를 먹고 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데 왜 꼼짝 않고 서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노스님이 “내가 움직이면 이나 벼룩이 피를 빨아먹는데 불편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니 청년은 비단 장사를 그만두고 스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갑자기 집에 계신 홀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청년이 잠시 망설이는 동안에 노스님은 발길을 옮겼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청년은 노스님이 보이지 않자 비단 보자기를 땡개치고 어느새 산길을 오르고 있는 노스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청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대산 동대 관음암에 도착하자 스님은 청년을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인 일로 나를 따라 왔고?” 하니 청년이 답하기를 “저는 비단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단장수입니다.

오늘 스님의 인자하신 용모와 자비행을 보고 문득 저도 수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네가 수도승이 되겠다 말이지.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할 수 있겠느냐?” 하니

“예, 스님 무슨 일이든지 힘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청년의 결심이 굳은 것을 확인한 노스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로 들어온 청년행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업에 저 큰 가마솥을 옮겨 새로 걸도록 하라”

새로 행자가 된 청년은 흠을 파다 짚을 섞어 반죽한 후 술을 새로 걸었습니다. 한낮이 기울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스님, 술 거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오냐, 알았다.”

스님은 점검을 하시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신 스님은 “걸긴 잘 걸었다만 이 아궁이엔 이 술이 너무 커서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으니 저쪽 아궁이로 옮겨 걸도록 해라” 하고 이리시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행자가 된 청년은 다음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술을 때어내어 옆 아궁이에 다시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다 걸고 부뚜막을 곱게 맥질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기척도 없이 불쭙 부엌에 나타나셨습니다.

“인석아, 이걸 술이라고 걸어 놓은 거야, 한쪽으로 틀어졌으니 다시 걸도록 해라.” 하면서 노스님은 짚고 있던 석장으로 술을 밀어 내려 앉혀버렸습니다.

행자가 보기에는 전혀 틀어진 곳이 없었지만 스님이 다시 하라는 분부를 받았으므로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로 술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옮겨 걸고 허물어 다시 걸기를 아홉 번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노스님은 청년행자의 구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아홉 번 고쳐 걸었다는 뜻에서 구정(九鼎)이란 범명을 내렸습니다. 범명을 받은 구정스님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참으로 장하구나. 대단한 결심을 했으니, 어미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큰 스님이 되도록 하여라.” 하고 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길로 집을 떠나 산으로 돌아온 구정스님은 순수하고 순일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뒷날 명성을 떨친 구정선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노스님은 통일신라시대의 선지식인 무염(無染)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허하고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행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고 기도하려고 절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속에서의 모든 알음알이와 시비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심(下心)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넙친 잔에는 더 이상 새로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짙은 방에는 더 이상 물건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며, 알음알이로 덮인 마음속에는 아무리 좋은 진리라 하여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에서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비분별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이 도량도 도량신이 보호하는 더욱 청정하고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 청정한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도량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주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神光不昧 萬古徽猷(신광불매 만고 휘유)니,

入此門莫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어둠이 아니하여 만고에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

우리 길상사 뜨락에 어느덧 영춘화가 꽃 봉우리를 틔웠습니다.

봄이 되니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 그대로 봄인가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57년 2월 초하루 범문

(2013년 3월 12일)

초·중·고생 105만 4천여명, 정신과 치료대상... 왜?

글 • 김용택(교육 칼럼니스트)

학생 6명 중 1명이 '관심 필요', 자살 고위험군도 10만 명!

교육부가 '초중고생 정서·행동 전수조사' 결과 6명 중 1명이 '관심군'이고, 자살 고위험군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생 648만2천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우울증 징후나 폭력 성향을 보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16.3%인 105만4천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차 검사에서 불안, 우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심층상담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주의군' 학생은 4.5%인 22만3천989명이었고, 1.5%인 9만7천여

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검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생들조차도 '관심군'이 46만6천560명(16.6%), '주의군'이 5만898명(2.4%)이나 나왔다.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교과부의 검사가 검사지의 신뢰도, 주의군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내 전문 인력의 부족, 가족상담 치료지원, 정서·행동문제 근본적·단기적 예방과 일상적인 관리체계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2011년 검사결과보다 검사 절차의 간소화, 학교 내·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어쩌다 우리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6만 명의 10대가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로 학업 적령기에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합친 누적 숫자는 한 해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학교는 날이 갈수록 부적응 학생이 증가해 탈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학교는 검사를 하고 나니, 정서·행동 문제 학생이 50%가 넘게 나왔다. 검사지의 신뢰성 문제인지, 실제 그런 상황인도 어리둥절하다. 지역별, 학교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은 첫째 과중한 학습스트레스이고 둘째 부모와의 대화 단절 때문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정신과 치료대상이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요즘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2천 5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던가? 시대를 초월해 어른들 눈에 비치는 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결핍하면 부모에게 눈을 부라리고 걸핏하면 친구들에게 주먹질이다. 학교를 뛰쳐나가고 가출이며 자살문제도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연수를 받으러 가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본 사람은 안다. 재미없는 강의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 인지……. 한 시간을 참고 듣는 것도 고역인데 하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20평의 교실에 40여명을 가둬놓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문제풀이만 시키는 학교.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운동장이며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고, 졸업장

이 필요해 시간을 잡아먹고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 체형에 맞지도 않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하루 14~15시간씩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 자세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깜빡 졸다 들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문제가 취급받기 일쑤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의 자살 자수는 총 202명으로 전년(137명)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15~24세) 자살자 수는 10만 명이다.

입시경쟁에 뒤처진 학생들, 경제적 빈곤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학생들이 정서행동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학교교육이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동장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어 있는가? 입시경쟁구조와 경제적 빈곤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Wee 클래스와 상담교사조차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더 많다.

대부분의 학교는 상담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가 대부분이며, 20%가 넘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교과부 통계에 비취볼 때, 전교생을 1천명인 학교의 경우, 200명이 정서행동 문제 학생이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과부 대책은 학교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형식적으로 위기대응팀을 꾸리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정례화,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도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이 일반 지역에서는 느슨하게, 취약지역 일부에는 탄탄하게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 한정할 경우, 정신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지역 사회의 낙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과 학교에 20%내외의 관심학

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대책은 없을까? 지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지역에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기 중 담임교사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발견하면 즉시, 지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이후 학교와의 피드백을 통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서·행동의 문제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형성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장과 학교가 일과시간에 부모와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심군'을 비롯해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다. 이들을 더 이상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검사와 선별 위주보다 예방과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 상담을 필수화하고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유급휴가를 법령화해야 한다. 특히 Wee 클래스와 전문상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담임교사가 지역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가 지역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건강검사와 정신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는 체계적인 상담연수를 지원하고, 보건교육과 정신건강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신건강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100만 명이 넘는 정신과 치료 대상 학생들을 두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여기 한국의 블루스 음악이 있다, [블루스 더, Blues]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블루스(Blues)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나이트 클럽이나 스탠드 바 같은 성인 무도회장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 다음, 막간에 숨을 고르기 위해 한 두곡쯤 느린 템포의 곡이 나올 때 남녀가 찰싹 붙어서 추는 춤을 떠올리시겠지요. 상체와 하체를 밀착시키고 사랑의 밀어를 속삭이면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어설픈 춤을 째는 날 취기로든, 연애하면서든 취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교춤 중에 분명 블루스가 있긴 하지만 사교춤의 블루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루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스는 대중음악 장르인 블루스가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통속적으로 변한 것이구요. 블루

스는 사실 미국의 흑인들이 만든 대중음악 장르입니다. 미국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죽이고 강제로 쫓아낸 백인 유럽 이주민들은 대규모 농업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남부의 농촌 지역에 정착해서 목화를 비롯한 농업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동요들이 블루스 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민요가 된 것처럼 그들도 백인들에게 엄청난 차별 대우를 당하면서 느낀 서러움과 비참함, 삶의 희망 같은 것들을 노래로 부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당연히 유럽에서 온 백인들의 음악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음악에 백인들의 음악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의 토속적인 질감이 살아있는 음악을 부른 것이지요. 블루스는 12마디를 기본으로 하면서 앞에서 선창을 하면 따라 하거나, 가수가 먼저 노래를 하면 그 길이만큼 기타가 연주를 덧붙이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스가 아프리카의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미국으로 끌려온 이들이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합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요처럼 메기고 받는 형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루 노트(Blue Note)라고 하는 레#과 미 사이, 시와 시# 사이의 묘한 음높이도 블루스 음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블루스는 처음에는 흑인들만이 구전으로 불렀던 음악이었지만 블루스 가수들이 등장하고 백인들의 음악에는 없는 끈적끈적하고 깊고 호소력 있는 사운드에 빠져들게 된 백인들에 의해 음반으로 레코딩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는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재즈, 록큰롤, 알앤비(R&B) 등의 많은 대중음악 장르들을 낳게 됩니다. 블루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중음악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블루스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블루스 음악을 하는 음악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60~70년대에 록 음악을 한 뮤지션들 가운데 미군 클럽에서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시작했던 대중음악인들은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김홍탁, 신중현, 최이철 같은 초창기 밴드 뮤지션들은 블루스로부터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흑인 음악의 감성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블루스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김목경, 신촌블루스, 이정선 같은 블루스 뮤지션들이 등장하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부르스라는 제목을 붙인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전부르스>, <무정부부르스> 같은 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이 노래들은 블루스가 아니라 트로트였습니다. 트로트곡인데도 부르스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블루스를 잘 몰랐거나, 블루스의 깊은 감성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사실 한국에서 블루스는 변방의 음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블루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은 한 손가락으로 다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롭게도 블루스 음악을 하겠다는 음악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서울 홍익대학교 앞의 라이브 클럽과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

들 가운데 블루스 음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허달림을 필두로 밴드 로다운30(Lowdown30), 김마스타에 이어 하현진이라는 블루스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한 것이 변화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거나 블루스 음악을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지난 해에 함께 [블루스더, Blues] 음반을 만들면서 블루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12명의 뮤지션들이 함께 만든 [블루스더, Blues]에는 강허달림이나 강산에 처럼 비교적 널리 알려진 뮤지션이 만든 곡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뮤지션들이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김마스타, 김태춘 등의 뮤지션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블루스 음악을 해오던 뮤지션으로서 홍대 등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모인 것이 바로 이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한국어 블루스 창작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같은 통

기타음악이라고 해도 양희은의 통기타 음악과 송창식의 통기타 음악이 다르듯이 블루스 역시 다양한 편인데 이 음반에서는 델타 블루스, 록 블루스, 어반 블루스, 한국적 블루스 등 여러 블루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블루스 음악의 특징인 솔직함과 유쾌함, 목직함은 가사와 사운드로 함께 드러납니다. 이 음반에 담긴 곡들 가운데 특히 지난해 홍대 앞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김대중의 <300/30>이라는 곡이 대표적입니다. 가사를 한 번 살펴볼까요? '삼백에 삼십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 동네 옥상위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 이것은 연탄창고 아닌가 /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 평양냉면 먹고 싶네 // 삼백에 삼십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 평양냉면 먹고 싶네 // 삼백에 삼십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 수염 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 오늘

밤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요 // 평양냉면 먹고 싶네'가 가사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30>은 바로 보증금과 월세 금액입니다. 서울에서 젊은이가 혼자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유쾌한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스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웬지 어려운 음악 같고, 부담스러운 음악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귀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익숙해진 음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에는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민적이기도 하고 통속적이기도 한 블루스 음악은 트로트 같은 옛날 음악들과도 비슷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상 듣던 음악만 들으면 재미가 없지 않나요?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되겠지요.

작은 울림 큰 물결 - 제이드 Jade

글 • 변택주

세상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잘한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터질 듯한 커다란 폭포 소리도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내는 소리가 모여 이룬 오케스트라. 신음처럼 작은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불러 폭포를 이루고, 더듬어야 겨우 잡을 만큼 작은 사랑도 서로 끌어 당겨 내를 이룬다.

‘북극곰에게 모델료를 주는 회사’로 널리 알려진 디자인 회사 ‘제이드Jade’를 이끄는 작은 거인 홍선영(29) 대표는 국민대 국문학과에 들어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장난감에서 독성물질이 나와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비로소 기업 이윤 추구가 도를 넘

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장난감 회사를 만들어 영리에 앞서 어린이를 보듬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다가 스물두 살 때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이란 책을 만나면서 이윤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모델료를 사람에게만 주지?

국문학을 하고 경영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어 디자인회사를 이끌고 있을까? “저는 필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스테들러staedler란 독일 필기구 회사 리뷰콘테스트에 여러 번 참가 했는데 응모할 때마다 1등이었어요. 열심히 썼거든요. 제 방에 상품으로 받은 색연필을 비롯한 미술용품이 그득했

어요. 그걸로 툴툴이 그림을 그렸는데 모두 동물이더군요. 신기하게 모래알처럼 자잘한 인연들이 모이고 고여 회사가 됐어요.” 어려서 옷이나 인형, 필통이나 연필 한 자루를 사도 동물그림만 고집했을 만큼 동물에 흠뻑 빠졌던 홍선영.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게 된 까닭도 대학교 1학년 때 선물 받은 북극곰 인형에 흠뻑 빠져 북극곰만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친구들 부추겨 재미삼아 북극곰스티커를 만들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선을 보였는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빨래줄처럼 늘어진 줄에 죽어가는 북극곰 스티커를 걸어놓고 팔았어요. 메시지가 강한 스티커였는데 사람들은 곰이 너무 귀엽다면서 사갔어요. 곰을 보고 샀으니 돈은 곰이랑 저랑 같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돈은 저 혼자 다 가졌으니 곰에게 빛진 기분이었어요. 북극곰을 모델로 내세운 코카콜라사이트를 들어가 살살이 훑어봐도 모델료를 줬다는 말이 없더군요. 저희라도 모델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물과 어깨동무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댄 회사 ‘제이드’. 멸종 위기에 내몰린 동식물은 제이드 모델 ‘제이텔’이 된다. 제이텔을 주인공 삼아 신문지로 연필을 만들고 되살린 종이로 노트나 카드를 만들면서 환경 보존이 환경운동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힘쓴다. 2009년 환경부와 함께 ‘세계습지의 날 행사’ 때 스티커 프로젝트를 진행 ‘SAVE THE BROWN’ 스티커 세트를 팔아 얻은 수익금 10퍼센트를 습지보전 사업 기금으로 내놓았다. 사실 수익금 10퍼센트를 내놓아야야 멸종위기에 몰린 동물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일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관심을 끌어 모으는, 작지만 큰 걸음이라고



JADE를 낳은 북극곰 스티커

여겨, 제품을 만들어 팔고 동물에게 모델료를 주는 회사란 컨셉으로 소셜벤처 경영대회도 나가다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과 손잡고 맹렬히 한 해 반을 넘기고 난 홍선영 대표. 문득, '이 일이 참으로 동물을 돕는 일일까? 싶으면서 '그동안 북극곰에게 모델료를 준다는 명분에 얽매어 꼭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몹시리쳤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북극곰이나 소비자를 돕는 일이 아닐까? 멈춰선 홍 대표, 술한 인연을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됐다. 2009년 하반기.

홀가분하게 동물 책이나 다큐멘터리 사진, 영상을 샅샅이 훑었다. 좋은 사진이 있으면 저장하고 신기한 이야기는 정리해 웹사이트에 올려 사람들과 나누면서 아이টে를 확 줄였다. "드문드문 좋은 분들과 만나 속내도 나누고 학교에 다니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바뀌어있더군요. 처음에는 북극곰이 힘없

이 얼음 위에 누워 있는 그림을 비롯해 배경도 없이 동물만 달랑 보여주면서 '이렇게 위험해.'하며 사람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한 해 남짓 동물과 놀다보니 뜻하지 않았는데 자연에서 동물들이 노니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쪽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고개를 들어 다른 회사 친환경 제품을 돌아보니 위험에 싸인 동물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끌어내려는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지난 날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는 홍선영 대표. 재료가 친환경이나 아니냐에 앞서 노트 한 장이라도 알뜰하게 끝까지 쓰고 쉽사리 버리지 않게 하는 절고운 상품개발이 바로 환경을 살뜰히 여기는 느껴운 마음씀씀이가 아니겠느냐고 한다.

땅을 사모아 동물에게 줄래

"이제 모델료를 직원 월급 주듯이 하려고 해요. 기업이 우리는 직원 월급을 준다고 떠벌리지 않잖아요. 굳이 우리는 동물 모델료를 주는 회사라고 걸으

로 드러내 좋은 일 하나까 많이 사달라고 하긴 싫어요."

처음엔 모델료를 환경 단체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모델료로 이면지 박스를 만들고 이면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설명서와 프린터, 모니터 가장자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물건을 샀던 고객들에게 무료로 보내줬다. 그러나 시큰둥하니 피드백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모델료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자며 손님들을 초대했다. 외국인을 비롯해 2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반응을 물어보니까 알아서 잘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샀는데 불러주어 고맙기는 한데, 제이드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내가 북극곰이라면 돈을 어디에 쓸까를 떠올

려야 한다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 뒤로 회의를 할 때 꼭 한 사람은 북극곰이 되어 회의에 참여했다. 마침 내 곰, 기러기, 다람쥐 어떤 동물이라도 식구들을 잘 보살피려면 가장 먼저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미친다. "동물 집은 땅이잖아요. 찾아보니까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trust란 곳에 땅을 기부하거나 후원을 하면 나라나 다른 힘들이 넘보지 못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기업이니까 땅을 사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하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는 문화유적을 비롯해 환경보존 가치가 있는 땅 목록이 있다. 제이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목록에 올라 있는 가운데 조그만 땅을 사서 기부하려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다.

물건을 꼭 돈 주고 사야해?

아이টে를 줄여 한 품목, 한 품목 값이 들어가 디자인 감도를 높여 내놓는 제

이드, 카드가 주 품목으로 한창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기러기 식구 시리즈다. “카드가 지닌 고갱이는 마음을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멀리 있는 사람이나 격식을 차릴 데만 보내고, 정작 마음을 알려야 할 엄마나 아빠, 아내나 남편, 아이들한테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오월은 식구들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에게 고마움을 드리는 달이잖아요. 가족카드와 감사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러기는 살붙이 사랑이 가장 깊은 동물이다. 짝을 이루고, 알을 품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살가운 가정을 이루는 삶을 정성스럽게 엮어 정감 어린 카드로 낳았다. 기러기 카드 하나하나에 사연이 깃들어 있는 만큼, 어떤 카드는 청첩장으로 어떤



기러기 카드

카드를 베이비 샤워Baby shower, 어떤 카드는 환갑이나 칠순잔치 또는 은혼식, 금혼식 때

에 따라 알맞게 쓰면 된다.

한 발 한 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멋진 걸음을 내딛는 제이드 구호는 ‘Business for Happiness,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해야 할 고민을 대신 하는 업업’이라고 정의하는 홍선영 대표. “제가 어디 있든 제 몸뚱이 빼고는 다 산 물건이에요. 바닥재부터 천장까지 모두 기업이 만들었죠.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환경,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 하나 노트 하나 만드는 일이 삶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해요.” 곁에 있는 식구들한테 보내는 카드 한 장이 카카오톡보다 더 살갑다고 여겨 카드를 쓰거나 받는 사람 입가에 벅가는 웃음을 떠올리며 자연이야기를 알리는 홍선영 대표는 TV에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에 고개도 까딱 않던 젊은이라도 제이드 카드 뒤에 적바림된 기러기 사랑이야기를 찬찬히 살피고나면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면서, 조금 조금씩 ‘내가 좋으면 자연에도 좋고 자연 행복이 내 행복이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자연도 아파하고, 자연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일이 환경과 어울려 사는 일이구나.’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앞으로 기구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홍선영 대표, 카드 회사 경영자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카드는 직접 그려서 보낸다. “꼭 2천원 주고 저희 카드를 사지 않으셔도 좋아요. A4 종이 반을 접어서 곁에 그림을 그리고 안에 사연을 적어 보내면 되잖아요. 저는 누구나 카드 만드는 재미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낫 놓고 얘기를 듣고 앓았다가 미국대통령령부인 미셸 여사가 백악관 꽃밭을 갈아엎어 만든 밭에서 거뒀던 배추로 담갔다는 김치를 떠올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엇이든 돈 주고 사야만 한다는 생각에 매여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채 서론도 되지 않은 젊은 경영자 생각이 예까지 미치다니.

“지금은 저희 물건을 온라인에서만



JADE 홍선영 대표

파니까 완제품만 팔아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가게를 열면 손님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완제품이라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드리면서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노트가 되고 카드도 된다고 알려드리려고 싶어요.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삶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카드를 보내어, 곰이나 다람쥐가 살 땅 한 뼘이 사는데 어깨동무 하고픈 분이라면 www.lovejade.com을 살펴보세요…….

무소유의 삶 - 법정(法頂) ②

글 • 김정남(민주화 운동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법정스님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최초의 선승(禪僧)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정은 1970년대 초, 재야 민주화운동의 중심점으로 출범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처음부터 참여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3선개헌이 끝난 뒤 박정희 영구집권의 출발점이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71년 4월 19일 발족된 단체로, “민주적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쟁기를 호소하면서 출범했다. 법정은 이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는 불교계에서 첫 번째로 재야민주화투쟁에 참여한 기록이 된다.

그때 법정은 한강 건너 봉은사의 다래헌이라는 암자에 기거하면서 서울나들이를 했다. 그가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재야 민주화투쟁에 참여한 것은 함석헌과 함께 그 권유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가 1975년 가을, 송광사 불일암으로 떠나고 난 뒤에도 함석헌과는 편지와 책을 주고받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편지 왕래를 계속한 걸 보면 두 사람의 친교가 껍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하기는 두 사람 다 종교는 달랐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닮은 점이 있었다.

법정의 재야 민주화 활동은 그 이후

에도 상당 기간 활발히 전개되었다.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의 독재가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1973년 11월 5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15인 선언이 있었다. 이는 유신 이후 최초로 나온 재야의 반유신투쟁의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도 법정은 참여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장준하, 백기완이 중심이 되어 벌였던 헌법개정 1백만인 청원운동본부의 구성 때 법정은 운동본부 30명 중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나는 이보다 앞선 11월 26일 밤, 민족학교 주최로 서울의 대성빌딩 강당에서 열렸던 ‘항일문학의 밤’ 행사에서도 그를 보았다. ‘항일문학의 밤’은 그때 민족학교에서 펴낸 『항일민족시집』을 핑계 삼아 사실상 재야인사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벌인 ‘저항문학의 밤’ 행사였다. 법정은 그의 글에서 “거기 외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복도건 연단이건 입추의 여지없이 꼭 들어찬 청중들, 거기 하나같이 타오르던 그 눈매들, 그것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

다. 조국애에 뜨겁게 달아오른 사랑의 눈이었던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앞서 말한 1973년 11월 5일, 유신에 반대하는 재야 15인 선언이 있은 후 법정은 함석헌 등 8명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하루 종일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 ‘반성문’ 한 장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한사코 거절했다. 실랑이 끝에 그들이 준비한 서면에 손도장을 찍고 풀려났는데, 나이가 비슷한 법정과 이호철이 안국로터리까지 같이 걸어왔다. 로터리 초입에 이르자 법정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문고본이라도 한 권 사야겠소”라며 책방 쪽으로 가면서 둘은 헤어졌다. 이는 이호철의 글에 나오는 삽화인데, 이처럼 법정한테는 문학청년 같은 ‘순수끼’가 있었다. (중략)

그는 본회피의 표현을 빌려 종교의 사명과 자신의 고뇌를 말했다. 술 취한, 혹은 미친 운전자 차를 몰고 간다. 운전이 위태위태해 어디로 어떻게 몰고 갈지 함께 타고 가는 승객들은 불안해

견딜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고 노인이고 부녀자고 할 것 없이 무고한 목숨들이 그 차에 치여 죽어간다. 이런 때 종교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죽은 시체나 뒤치다꺼리하여 제사나 지내주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고말고, 우선 미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다. 두려워 때는 승객들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건져내야 하고, 정신이 멀쩡한 운전사에게 차를 맡겨 예정된 길을 달리게 하는 일이 곧 살아 있는 종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고뇌 속에서 서울을 떠날까 말까를 놓고 무척 고심했던 것 같다. 1975년 가을, 그는 마침내 떠나면서 이렇게 썼다. “마치 한 마리 산짐승이 들에 나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지친 몸으로 옛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 곁을 떠나는 미안함의 무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건강과 빛을 잃어버린 내 처지로서는 다른 도



1975년 불일암에서 함석헌과 함께

리가 없었다.”

법정은 두고 온 동료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디에 나가 남 앞에서 강연하거나 글쓰는 일은 애써 삼갔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뜻을 같이한 수많은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며 또 글을 쓰냐는 것이었다. 쓸렁한 겨울날, 혼자 부엌바닥에서 떨면서 먹이를 챙기면서도, 감옥의 독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동료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그 강인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신 또한 추위와 허기를 이겨냈다. (5월호 계숙)

* 출처: 김정남/두레출판사 『이 사람을 보라-어둠의 시대를 밝힌 사람들』에서

찾 자리의 향 사르기

글 • 이순희(수선행)

옛 다인이 말하기를 “향은 사람의 생각을 그윽하게 하고, 치는 사람의 뜻을 비우게 한다.”라고 했다. 예로부터 향과 차는 함께하여 찾자리를 맑고 운치 있게 하며, 종교의례, 궁정의례, 제례 등 생활에서의 상징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향의 역사는 고대사와 직결되어 웅녀가 먹었던 쑥과 마늘이 향신료였다는 유래와 『불교의식해설』에 의하면 고온다습한 인도에서 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사용하였다는데서 유래되어 온님에 맞이할 때에 마당에 향즙을 뿌리거나 몸에 발라 향이 마음의 때까지 씻어 준다는 생각에서 불교의 의례에 상용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향의 종류는 재료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삼국시대에 수입한 향의 원산지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전래되었고,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중에 으뜸인 침향(沈香)은 물에 가라앉는 무거운 나무의 뜻이다. 침향이 생성되는 과정은 향나무를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묻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거쳐 생성되므로 신비한 향과 희귀한 약성으로, 약재로도 사용되어 귀하게 여겼다. 종교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순수함으로 정화되어 신앙대상과 교통하기 위함이다.

불교에서 분향은 “모든 불교의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향은 불보살을 맞이하는 기능이 있어서 모든 불보살은 이 향의 연기를 타고 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향으로 불보살을 청한 이후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은 오늘날의 불교의식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장청규」와 「선원청규」에서는 다례와 향례가 함께 병행하여 거행된 의식에서 향을 분향하는 시자가 있었다. 이렇듯 불교의식에서 향례와 다례를 행하여, 오늘날 불단 상단에 향로와 다기가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향 사르기에는 불교와 예불, 스님의 다사(茶事)와 관련이 있었으며, 최치원 선생이 왕명으로 지은 쌍계사의 진감국사(775-850) 비문에는 그 당시의 풍습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이를 갈 때쯤 소꿉놀이를 하게 되매 반드시 나뭇잎을 태워서 향이라 하고 꽃을 따 모아 제물을 차렸으며 어떤 이가 호향(胡香)을 선사하면 기와에다 잿불 담아 알(丸)짓지 않은 채로 태우며

말하기를 “나는 이 냄새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마음만 경건히 할 뿐이다.” 했으며, 다시 중국의 차를 제공하는 이가 있으면 섯으로 돌술에 불 지피고 가루내지 않은 채로 달여 마시며 말하기를, “나는 이 맛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다만 배만 적실뿐이다.”- 했으니 진술을 지키고 속된 것을 거스르기가 이와 같았다.

고려시대 「고려사」의 〈예지〉에 궁정의식에 연등회, 팔관회, 왕태자, 왕비 책봉하는 의식의 군신을 연회하는 의식에 향례, 다례와 화례, 주례가 함께 거행되었으며, 불교의 「인왕경」에 따르면 백사자후고좌(百獅子吼高座) 앞에는 백 개의 등불을 켜고 백 가지의 향을 사르고 백 가지의 여러 빛깔의 꽃을 삼보 전에 공양하였으나, 차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서 궁중의식, 종묘제례에 향례와 다례, 주례, 화례를 거행하였으며, 조정에서는 향을 맡아보던 직제가 있어 수급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유교의 향례는 송나라 주희(1130-

1200)의 「가례(家禮)」에 의한 관혼상제와 기제(基祭)에서, 분향하고 주부가 점다(點茶)를 한다고 한다.

도교의 향례에는 태종(재위: 1410-1418)때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뒤에 폐지된 소격서(昭格署:하늘, 땅, 별에 지내는 초재를 맡았던 관청)에 〈현관과 서원은 무두 흰옷을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치제(致祭)하는데 관, 예복을 갖추고 제사 지낸다. 제물은 과일, 떡, 다탕(茶湯)과 술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백 번 절한다.〉 도경(道經)을 읽고 또 축문을 푸른 종이에 써서 태운다.

이러한 우리의 향 사르기 풍속은 차지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사계절의 맑은 취미

봄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말린 매화를 끊어 차를 만들며, 장미이슬로 손을 씻고, 옥유향(玉蕤香)을 피운 다음, 정오에 샘물을 길어다 햇차를 달인다. 땅거미가 지면 지름길로 돌아와서 낙화(落花)를 주워 물고기에게 먹인다.

여름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꽃나무 옆에 앉아서 이슬을 받아 마셔 오후에는 야자배에 오이와 오얏을 띄워놓고 연꽃을 찼어 벽방주(壁芳酒)를 마신다.

가을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휘장을 내린 뒤 옹중(翁中)에 거문고를 뜯고 학을 길들이며, 정오에 다구를 정리하고 땅거미가 지면 사립문에 기대어 초부(樵夫) 목동(牧童)의 노래를 들으며, 반달향(半月香)을 피워놓고 국화를 가꾼다.

겨울철에는 신시(申時)에 벼룩과 가죽모자 차림으로 시풍등(嘶風燈)에 올라 발 저는 나귀를 채찍질하여 설매(雪梅)의 소식을 탐방한다.

열두 시간의 맑은 취미

오시(午時)에는 선향한 개비를 피우고 차는 입안을 먼저 씻어낸 뒤에 마시고 묘시(卯時) 첫새벽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차나 달이며 뜻을 바둑에 붙이기도 한다. -문인 이규경(1788-?)의 “일년 사계절과 하루 열두 시간의 맑은 취미에 대한 변증설”

경주의 석탑③ - 나원리 오층석탑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운영위원)

우리나라의 철도 동해남부선과 금강 삼각선이 만나는 자리에는 나원역이 있습니다. 나원역은 경주와 포항을 거쳐 동해로 흘러나가는 형산강 변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2008년 여객 취급이 중지되었다가 2010년 재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재개한지 보름 만에 다시 여객 취급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화물 전용 기차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형산강 강변에 바짝 붙어있는 유일한 기차역인 이 나원역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농경지를 가로질러 바라보이는 산기슭의 이름이 없는 절터에 높이 9m 정도 규모의 웅장한 나원리 오층석탑이 서 있습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5층 석탑으로 1962년에 국보

제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석탑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웅장한 기세로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탑에 이끼가 생기지 않아 청신하고 깔끔한 흰색의 빛깔을 유지하고 있어 '나원 백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단은 2층으로 쌓였고, 기단의 각 면에는 기둥을 새겼는데 1층 기단은 모서리와 가운데 세 개의 기둥을 새겼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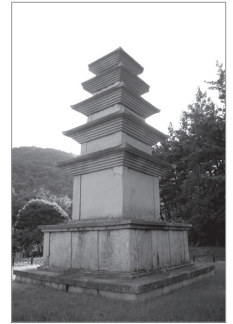
나원리 5층석탑

2층 기단은 모서리와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을 새겼습니다. 기단부의 덮개돌인 갑석 윗면에는 2단의 층급을 만들어 2층 기단의 면석과 1층 탑신을 받치고 있습니다.

탑신부에는 모서리에만 기둥을 새겼습니다. 기단, 1층 탑신의 몸돌, 1층과 2층의 지붕돌을 제외한 2~5층의 탑신의 몸돌, 3~5층의 지붕돌 등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지붕돌은 경사면의 끝선은 날렵하게 수평을 유지하다가 귀퉁이 끝을 살짝 들려 경쾌한 느낌을 살렸고, 지붕돌의 밑면은 각각 5단의 층급받침을 두었으며, 지붕돌 윗면 역시 기단의 덮개돌과 마찬가지로 위층 탑신을 받치는 부분에 2단의 층급을 두었습니다. 탑의 맨 위에는 머리장식을 받쳐주는 노반이 남아있고, 상륜(머리장식)을 지탱하는 쇠로 만든 찰주가 남아 있습니다. 또 1996년 3월에 해체복원을 하었는데 이 때 3층 부분의 사리함에서 금동불 입상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탑이 세워진 시기로 추정되는 통

일신라시대인 8세기경의 전형적인 석탑 조성 기법으로 석탑의 짜임새 있는 구조와 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원리 5층석탑

또한 흰색의 화강암이 가지는 깨끗하고 밝은 색감과 웅장한 크기를 가진 석탑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주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 탑은 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이나 고선사지 삼층석탑처럼 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탑의 규모와 깔끔하고 섬세한 조각, 깨끗한 이미지와 위치 등을 볼 때 분명 신라의 중요한 사찰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는 이 나원리 오층석탑과 비슷한 규모의 탑으로 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국보 제112호)와 고선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8호)이 있습니다.

:: 2012년 결산

(단위: 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기본 수입	일반 후원	일반(회원) 후원	282,275,138	사 업 비	장학사업비	장학금	54,389,990
	결식 후원	결식후원	194,335,200		결연가족 후원사업비	결식이웃후원	226,625,120
보통 수입	특별 후원	결식이웃 후원	1,330,000			결연가족후원	23,699,940
		일반후원	119,976,115			일반후원	74,778,000
	장학금 후원	390,000	자연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8,402,870	
	맑고향기롭게 살기 캠페인	19,076,000			알뜰환경지킴이모임	9,739,260	
	자연 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	8,715,000		지역모임 활성화사업	급식사업비	34,924,200
알뜰환경 지킴이 모임		17,009,200	계몽활동비		소식지발간 및 배포	47,721,310	
기타	이자수익	31,126,599			가타홍보물 제작 및 배포	11,847,230	
	예수금	6,843,040			홈페이지관리비	25,471,970	
				맑고향기롭게 살기 캠페인	16,661,010		
				회원교육비	1,626,850		
				일반후원 수수료	3,174,130		
				일반관리비	중앙모임 운영비	159,672,264	
					유 영 비		
수입 합계			681,076,292	지출 합계			698,734,144
전년 이월			742,411,495	차월 이월			724,753,643
총 계			1,423,487,787	총 계			1,423,487,787

:: 2013년 예산

(단위: 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사업 내용	
관	항	목			
마음	계몽 활동비	소식지발간 및 배포	5,520	월간 '맑고 향기롭게' 정기 발간	
		연꽃 스티커	2,000	연꽃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연꽃로고 디자인 매뉴얼 작업	
		맑고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200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 수련회 기획	
		홈페이지 관리	2,000	후원통합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회원교육, 교류	1,100	지부 사무교 교류, 봉사팀 간담회, 직원, 봉사자 교육,연수외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1,300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강연회, 캠페인	
		모금 캠페인	300	모금 캠페인, 회원 증대, 홍보 - 독거노인 1:1 결연 지원연계	
		가타홍보물	1,850	활동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지로,봉투,리플렛외), 달력배포	
		일반후원 수수료	350	CMS,지로 수수료	
		세상	결연가족 후원사업	장학사업	장학금
결연가족후원	2,470			복지시설, 결손가정, 장애인후원, 정기나눔행사, 장애이동캠프외	
결식이웃후원	20,550			결식이웃 420여가구 밀반찬 지원, 상품권 지원, 김치, 김장 지원외 전화발벗-결식이웃-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긴급지원	
구호성금	1,000			국내 자연재해 구호성금(의약품, 김치 등 후원)	
문화사업후원	400			장애인 문화 단체, 소규모 문화 단체 지원 - 연계	
일반후원	2,000			극빈자 의료, 수술비 지원 사업 확대	
자연	자연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960
알뜰환경지킴이 모임		1,000	친환경생활용품 직접만들어쓰기 강좌, 의료 재활용 리폼		
녹색나눔장터		200	녹색 나눔 장터 운영, 봉사자 활동 지원, 캠페인 연계		
환경연대활동		200	환경 현안문제 발생시 타단체와의 연대활동		
지부 연대	지역모임 사업	지부활성화	7,000	각 지부 마음, 세상, 자연 사업 활동 기반 마련	
운영비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19,200	중앙모임 제반적인 총괄 운영비	
총 계			75,600		

아름다운 마무리

4월의 결연 대상자 - 이봉섭 어르신

성북구 종암동에 사는 이봉섭(64) 어르신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집에서나 밖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젊음이 왕성했던 시절, 청량리 야채 시장에서 화물차로 노점상을 하던 이봉섭 어르신은 돌연 '장 유착'에 의한 '장 폐색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장이 서로 달라붙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어르신은 10여년간 위생병원, 삼성병원, 기타 개인 병원에서 여러 수술을 거듭했지만 끝내 완쾌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못하셔서 노령연금도 받지 못하는 연세입니다.

어쩌면 이봉섭 어르신은 병원에 계시면서 영양을 받으시는 게 훨씬 적합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가나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원 입소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함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만 병원 생활만 하고 계시지 않을 뿐 여전히 장에 가스가 차고 소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 변비약이나 설사약을 복용하고 때론 구토를 경험하십니다. 배에 가스가 차 올라 느닷없이 장이 꼭 막힐 때는 어쩔 수 없이 토하게 되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신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10년 병원 생활 끝에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 미혼인 어르신은 그나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부족해서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는 동생들의 지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의 현재 순간을 절망이라고 표현하곤 하십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특별한 계획이나 희망, 즐거움은 아예 모르고 지내십니다. 하루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이 몸이 편안해보았으면 하는 바람만이 유일합니다. 이봉섭 어르신은 2리터 용기에 담긴 물을 하루에 2병 이상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장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름마다 병원을 이용하긴 하지만, 물을 많이 먹고 되도록 자꾸 걷는 것이 어르신에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입니다.

방안은 어둡고 몸도 힘겨워, 누워서 TV를 보며 소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개운산 약수터를 다녀오는데, 몸상태가 산 정상을 다녀오는 데는 무리가 있어,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약

수를 받아오는 일과가 이봉섭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어르신의 전기밥솥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전제품이 필요합니다. 이봉섭 어르신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4월의 결연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모금활동

- * 4월 13일 : 한성대역 6번 출구 부근
- * 4월 28일 : 길상사 경내
(녹색정터와 함께)



중앙모임 (02-741-4696~7)

법정스님 3주기 추모법회 · 진영 봉안식 원만회향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선포하시고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신 법정 스님의 3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법회는 생전 법정 스님의 말씀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추모법회에는 법정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동당 법흥 스님, 송광사 스님들, 법정 스님의 문도, 본모임 임원, 길상사 신행단체장의 일반 불자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추모법회에 이어 길상사 경내 진영각에서 '법정 스님 진영 봉안식'이 봉행되었습니다.

법정스님 진영각 상시 참배 가능합니다.

법정 스님 입적 3주기를 맞아 법정 스님 진영 봉안 및 유품을 모셔 일반인들이 상시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님의 진영은 한국 화단의 수묵(水墨) 인물화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호석 화백의 작품이며, 진영 글씨와 진영각 현판은 한국 서예계의 거목 여초 김응현 선생의 제자로 일반 서예계에 명망이 높은 양평 보타암 기현(奇玄)스님의 작품입니다. 진영각은 스님이 사용하시던

안경과 펜 등 손때 묻은 유품과 생전 집필하신 저서를 간소하게 진열하여,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무소유 정신을 오롯이 느끼고 텅빈 충만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영각은 오후6시까지 개방됩니다.)

故김광석 노래와 더불어 법정 스님을 그리다.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3월 10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의 주제는 가수故김광석의 노래 제목 '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인용하였습니다. 감성적인 노랫말과 마음을 움직이는 음색으로 대중적 사랑을 받았던 그 역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맺어보고, '맑고 향기롭게'의 취지를 음악과 더불어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故김광석의 노래 '맑고향기롭게'를 시작으로 주옥같은 노래들을 선보였으며, 생명활동가이기도 한 박창근씨의 '생명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연은 참석한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3년 정기 이사회, 대의원 총회 보고

2013년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지난 2월 22일 오후1시 30분부터 5시까지 길상사 설법전 회의실과 소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부의 2012년 사업보고·결산, 2013년 사업계획·예산에 심의, 의결하였으며, 각지역모임의 현황을 교류하면서 사업 연대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40조, 1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연도 수입·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계좌를 대조, 검토한 결과 금액 및 증빙자료가 일치하여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진인선원 자원봉사 함께 하실 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구조보강공사로 인하여 휴관을 한 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휴관기간동안 봉사자 인원이 줄었습니다. 본모임 또한 기존 첫째, 셋째 수요일 봉사를 매주 월요일 봉사팀으로 합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인선원 봉사팀에서도 함께할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오전에는 노력봉사, 오후에는 놀이활동을 합니다. 오전 8시 20분에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서 함께 이동합니다. 함께하실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선정 및 장학증서 수여식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2013년 '맑고 향기롭

게 · 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는 4월 19일(금) 오후 2시에 마련됩니다.

길상사내 소강당에서 거행될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성북구, 강북구, 불교종합학교, 사회복지사, 지역모임 사무국, 회원들께서 추천하신 학생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한 해 동안의 수업료와 학교운영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며, 본모임 창립 후 2012년까지 45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학생 선정발표 : 2013년 4월 5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3년 4월 19일(금) / 길상사 소강당

2013년 숲기행 안내

1. 주제 : 숲과 함께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2.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답사지가 변동되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 4월-하회마을(경북 안동), 5월-생골마을(충남 공주), 6월-고택마을(경북 봉화), 7월-한개마을(경북 성주), 8월-무섬마을(경북 영주), 9월-반교마을(충남 부여), 10월-문의문회재단지(충북 청원), 11월-외암마을(충남 아산/11월 숲기행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숲기행으로 진행 예정)
4. 참가방법
 - 참가신청 : 숲기행을 다녀온 후 다음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화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
- 참가비 : 회원 25,000원 / 비회원 30,000원
- 회원 기준 : 본모임의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으로 규정되며, 회원으로서 각종 혜택은 첫 후원 후 3개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회원은 1년 이내 최소 1회 이상 후원 해주신 분으로, 직계가족까지 포함됩니다.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녹색나눔장터 함께 진행하실 분을 찾습니다.

생활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과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이 함께하는 녹색나눔장터가 4월부터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베품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익금의 최소 20%는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장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

을 기다립니다.

의류리폼봉사모임은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는데, 특히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금액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

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 2일(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매주 목-4,11,18, 25일/금-5, 19, 26 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4월 1, 8, 15, 22, 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4일, 21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7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매월 셋째 목요일(18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3,10,17,24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의류 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 4월 28일(일) / 길상사 뜨락 / 오전 11시~ 오후 3시



대구모임 (053-753-8883)

4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4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문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경남모임 (055-266-0170)

4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

- 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4월 정기 활동 안내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원의 식대로

-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을 기다립니다.(쌀, 고춧가루, 야채, 김자반, 미역, 계란, 참기름 등등)
- 범능스님과 함께하는 노래모임 5월부터 진행될 노래모임에 동참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 노래를 좋아 하는 분
- 회비: 매월2만원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전모임 (042)823-0770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 기도

- 일정 : 4월 6일 (오후 8시~10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정 : 4월 13일(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 동참금 :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삼천배 철야정진

- 일정 : 4월 13일(오후8시30분~다음날 오전4시)
- 장소 : 설법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 절 수행시 좌복보호대를 사용해주세요.

4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20일 (토) ~ 21(일)
넷째 주말 27일 (토) ~ 28(일)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접수

5월 17일(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

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며, 환히 밝힐 연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친지는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복된 삶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등 접수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초파일 연등 접수는 종무실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자비의 주머니」 후원 접수

길상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갖가지 생필품이 담긴 자비의 주머니를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자비의 주머니」에 동참하실 분들의 후원을 접수받습니다. 생필품(비누, 양말, 식용유, 김 등)을 보내주시거나, 성금을 성의껏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자비의 주머니'를 전달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종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경전 5월 중순 개강 예정

-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 10주 과정, 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주간반(오후 1시 30분~3시 30분)
야간반(저녁 7시 30분~9시 30분)
- 접수 및 문의 : 교무실(3672-0036)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관음재일	5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5월 4일	오후 8시	극락전
초하루	5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5월 11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3000배 철야정진	5월 11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극락전
연등행렬 참석	5월 11일	오후6시	종로거리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5월 17일	오전9시	극락전
길상 음악회	5월 17일	오후 7시	극락전앞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2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하안거 결제 법회	5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5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적묵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오후1시 20분	소강당

